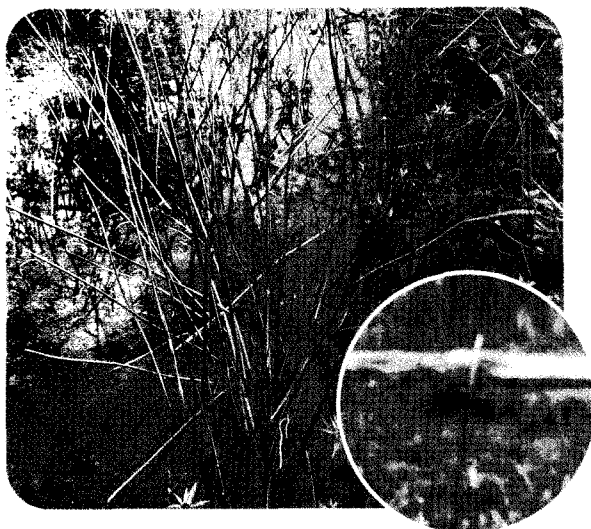


사초과 잡초

■ 이인용 농촌진흥청

을 방 개

거의 피경으로 번식을 하며 피경마다 휴면 기간이 크게 달라 발생시기가 늦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면에서 방제가 어려운 잡초이다. 출현 후 15일내외가 되면 새로운 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한번 형성된 피경은 토양 중에서 5~7년을 생존해 피경형성 억제에 중점을 두어 생태적 및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춘·추경으로 피경 발생량을 줄이고 설폰닐 우레아계 혼합제초제를 체계처리하거나 1차 일발처리 제초제 처리하고 발생 후에 벤틀존액제나 벤틀존혼합제를 경엽처리하면 방제효과가 크다.



을챙이고랭이



종자와 그루터기의 월동체로 번식한다. 그루터기는 여러 개로 떨어져도 눈만 있으면 싹이 나올 수 있다. 종자는 휴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논에서는 보통 1cm이내에서 발생한다. 이양직후 발생된 개체에서는 1포기당 종자생산량이 100개정도이지만 모낸 후 30일이 넘어 발생된 개체는 종자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종자의 수피는 넓은 도란형으로 흑갈색이고 윤채가 너무 양쪽이 볼록하다. 최근에는 설폰닐우레아계 제초제에 저항성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초기 토양처리제초제로 방제가 용이하나 발생 후에는 벤틀존액제나 벤틀존혼합제를 경엽처리로 방제가 가능하다.

새섬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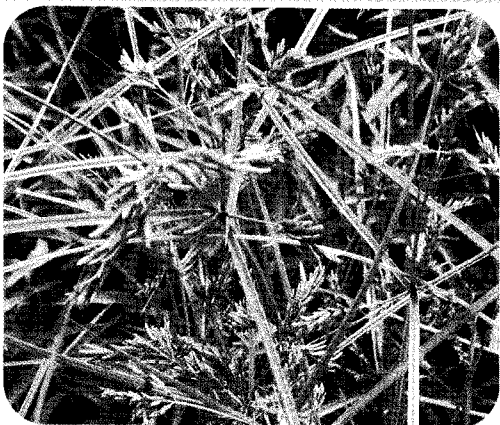
종자와 피경으로 번식하는 다년생잡초로 남부지방의 해안가에 있는 습한 논이나 간척답에 발생한다. 특히 저온발아성이 높아 3월 하순부터 발생하여 7~10월에 개화한다. 논에서는 썬레질 후 7~10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앙 후 40~50일까지도 계속된다. 피경의 분포는 토양표면에서 5cm이내가 많으나 10cm 이상에서도 발생한다. 발아 전에 초기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본엽 3매때 다년생잡초 방제용 제초제를 경엽처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경종적으로 논물을 5cm 이상 깊게 대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알방동사니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생의 잡초로 전국의 논, 밭 등지에서 발생한다. 발생시기는 5~6월로 주당 종자 생산량은 5,000립 정도이다. 초장은 15~60cm로서 꽃의 화서는 단순, 복생 또는 전체가 1개의 구상화서로 되며 많은 소수가 밀집하여 지름 0.8~1.5cm의 알과 같은 구상화서를 만든다. 종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바람이나 물에 의해 이동이 잘 된다. 적용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발아전(정지작업 후 5~7일)이내 살포하며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저항성 알방동사니는 체계처리하여 방제한다.



금방동사니



전국의 논이나 밭 등 농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년생잡초로 종자로 번식한다. 식물체의 높이는 50~70cm정도이고 줄기의 절단면은 삼각형이고 기부에는 몇 개의 잎이 있다. 1주당 종자생산량은 15,000립으로 많으며, 흙속에서 생존종자는 깊이 40cm에 까지 분포하며, 수명은 5년 이상으로 길다. 잡초발아전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방제할 수 있으며, 비농경지에 발생시 생육기 때 비선택성 제초제로 방제한다. 금방동사니는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해도 다시 재생력이 있다. Y